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국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8월 1일 월요일 (음 6월 10일)

제186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문화특별시’ 전주의 역사·문화 한눈에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3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주간 시청 로비에서 ‘영조 정순왕후 가례도감 의궤’ 기획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군산대, 2018학년도부터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금 16만8000원 경감 혜택

나익균 총장 “대학회계 효율적 운영 감당 충분”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관련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대학입학금 폐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대학교가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심 끝에 내려진 것으로, 2018년 신입생부터 입학금 16만8,000원의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군산대학교의 등록금은 전국 4년제 대학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군산대학교는 2017학년도 등록금을 0.2% 인하한 것을 비롯해 2009학년도부터 9년 동안 등록금을 인하 내지 동결해 왔다. 군산대학교의 2017학년도 등록금 수입액은 총 292억3,600만원이고, 이중 입학금은 3억4,100만원으로 총 등록금

수입액의 1.2%정도 수준이다. 군산대학교는 입학정원은 1,735명으로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3,88만2,500원이다. 계열별 등록금은 가장 낮은 인문사회계열이 348만7,800원, 가장 높은 예능공학계열이 440만8,600원이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나익균 총장은 “입학금 폐지는 모든 학생들에게 기초 장학금을 주는 것과 같다.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투명한 대학등록금 운영을 위해 결정한 사항이다”면서 “대학회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립대학의 입학금 폐지는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5학년도 기준 전국 대학 입학금 규모는 2015년 총 등록금 대비 약 3.2% 수준(4,168억원)이며, 4년제 대학 191개교의 평균 입학금은 약 64만원(2016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군산=장현 기자

메일 INDEX

4면 - 정현울 익산시장 기자회견

“사립학교법 정비해야”

김승환 교육감 주장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31일 “사학 비리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이 같이 밝히고 사립학교법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사학의 자율성은 헌법적 보호차치이며, 반드시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사학의 자율성과 함께 사학의 공공성도 중요한만큼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입법적 노력을 하고 그에 따른 감독도 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하는 사학은 아주 잘하지만, 문제 사학들은 마치 치외법권지역 처럼 돼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 내에 설치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부가 아닌 시도교육청에 각각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 기자

도, 국정과제 대비 국가예산 확보 나서

김일재 행정부지사, 문 정부 국정과제 분석 후 예산심의에 맞춰 기재부 찾아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핵심사업 예산 반영 건의

전북도가 최근 발표한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포함된 새만금 개발, 탄소산업 육성, 국립지리원 산립치유원 조성 등 주요사업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의 지난 31일 기재부 국가예산 확보 활동은 지난 28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개최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분석·대응 보고회’ 직후 3차 예산심의(7월 31일~8월 5일)가 시작되는 중요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방문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지역공약 및 지난 정부에서 지방비 매칭요구 등으로 미반영된 새만금 사업, 탄소산업, 국립 지리원 산립치유원 조성 등 도 핵심사업의 예산을 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김 부지사는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방기선 경제예산심의관 등 주요 예산심의관 및 쟁점사업 소관 과장 등을 차례로 만나 국가예산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018년 국가예산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먼저, 구윤철 예결총괄심의관을 만나 새만금 SOC의 조기 구축을 위해 2020년 이전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등 시준공을 위한 예산 3,900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현재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올 12월까지)중인 ‘새만금 항공항’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비 예산 10억원 건의,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민간개발 및 투자유치가 용이하도록 국가가 내부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새만금 공공매립’ 사업의 예산 146억원의 반영 필요성도 설명했다. 방기선 경제예산심의관을 찾아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자 예타결과 국가사업으로 추진결정된 ‘국립지리원 산립치유원 조성’ 사업에 대한 국립화 매칭요구 등으로 미반영된 예산 61억원의 건의, 1985년 준공되어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정성 E등급 재난위험시설로 판명되어 재가설이 시급한 김제육교 재가설 사업에 대한 예산 9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함께 내년도 20억원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지난정부에서 지방비 부담 등 쟁점사업 소관부서인 기재부 조인철 문화예산과장을 만나 내년 전라도로 명명까지 1,0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

고 미래 발전을 상징하는 기념공간 조성을 위해, 대통령 지역공약인 ‘전라도 새천년 공원사업’ 10억원을 요청했다. 동학특별법 근거로 지난 2년간 국비로 지원해오다 현재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며 예산이 미반영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의 국가 주도 전역 국비사업과 2018년 예산 296억원을 적극 건의했다. 전북·충남·세종의 광역연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선도사업인 11개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165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 김위정 지역예산과장과 이병연 연금보전과장을 찾아, 혁신도시 시종2 지역 공약사업으로 연금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금용타운 조성의 핵심시설인 ‘연기금 농생명특화 금융타운 조성’ 설계비 20억원 반영 건의했으며,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용역사업비 2억원을 적극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 1차관을 방문해 지역공약인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 사업이 3개 시도간(전북·전남·광주) 광역 연계사업임을 감안하여 소요 예산이 부처 직접편성을 산인 경제발전계정 반영을 요청하고, 4차 산업산업 부합사업인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함께 내년 예산 40억원을 지원 건의했다. /김진성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